

2019. 8. 14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온라인 2019. 8. 13(화) 오전 9시 이후 보도 가능)

홍보 담당	홍보협력팀 이샘물 (053-980-8232)	자료 문의	뇌연구정책센터 석헌 선임연구원 (053-980-8512, heonseok@kbri.re.kr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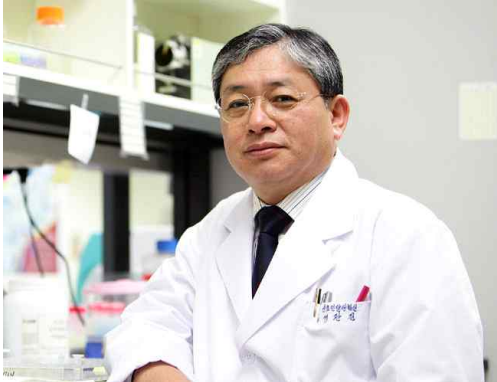
한국뇌연구원, 영국 킹스칼리지와 업무협약(MOU) 체결

- 치매 등 퇴행성뇌질환 연구 위한 공동연구실 추진
- 14일 현지에서 양 기관 협력 워크숍도 개최

- 한국뇌연구원(KBRI, 원장 서판길)은 13일(현지시간) 영국의 킹스칼리지 런던(King's College London) 치매연구센터와 퇴행성뇌질환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 앞으로 양 기관은 고령화 시대에 퇴행성뇌질환 퇴치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나선다.
-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은 1829년 설립 이래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으로, 최근 영국 최대 치매연구센터(UK DRI)를 유치하고 다광자 실시간 시냅스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연구활동이 활발하다.
- 한국뇌연구원은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연구를 위해 병원 임상현장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기초연구에 도전하는 역중개 연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. 이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▲치매 초기 병리기전 규명을 위한 뇌구조 변화 및 인체뇌자원 오믹스 분석 ▲현지 협력연구실 개설 및 자매연구실 운영으로 고도화된 연구기술 습득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▲인체 뇌조직·유전자정보 및 고해상도 뇌조직 영상기술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.

※ 오믹스(omics) : 개별 유전자와 전사물, 단백질, 대사물 등 생체물질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 분야

- 특히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영국 킹스칼리지 뇌은행이 보유한 인간 뇌조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국내 뇌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은 “전통적으로 세계 신경과학을 이끌어온 킹스칼리지 런던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뇌연구원에 오랜 연구 노하우와 축적된 인체뇌자원 정보가 더해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킹스칼리지런던 정신·심리·신경과학 대학(IoPPN)의 이안 에버럴(Ian Overall) 총괄학장은 “한국뇌연구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보고 협력파트너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다”며 “상호 공동연구실을 개설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, 임상 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퇴행성뇌질환 치료에 한발 더 다가갈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- 한편, 한국뇌연구원은 협약식 이튿날(14일) 양 기관간 협력연구를 위한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한다. 양 기관의 주요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참여 연구자별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중점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.



[사진1]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



[사진2] 킹스칼리지런던 IoPPN 이안 에버럴(Ian Everall) 총괄학장